

행복
만드는
전기로

서북공감

2023
JULY · AUGUST
VOL.114

INNOVATION

SPECIAL THEME 혁신



한국서부발전 사보 서부공감

2023 7+8월호(통권 114호)

발행인 박형덕
기획 정래현, 김정호, 김예지
발행일 2023년 7월 14일
발행처 한국서부발전 커뮤니케이션실
TEL. 041-400-129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285

기획·디자인 BeOK
TEL. 02-2038-2369

인쇄 (사)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TEL. 02-2644-2911

Photo by HERMANSYAH on Unsplash

INDEX

VOL. 114 2023 7+8월호



SPECIAL THEME ‘혁신’

- 4 **여는 글**
변화하며 가치를 만드는 일
- 6 **느끼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혁신의 에너지를 꽃피우다
- 8 **배우다**
혁신이 필요한 조직에 필요한 해답은
‘인재보다 조합’
조수연 인허브컨설팅 대표·기업 전문 강사
- 12 **만나다**
새로운 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어요
전이수 작가
- 16 **읽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의 삶과 글
윤석현 번역가·프랑스 문학 전문 출판사 ‘레모’ 대표
- 20 **걷다**
자연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김·포·산·책



WP STORY

- 24 **여는 글**
낡은 것을 바꾸어 나아가는 힘
- 26 **툏아보다**
세계 다섯 번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보유국을 향해
서부발전, ‘최초 국산 가스터빈’ 김포열병합 발전개시
- 30 **아우르다**
Talk! Talk!
혁신하는 기업 서부발전의 미래를 그리다

WP+

- 34 **WP ISSUE**
열정 가득, 에너지 넘치는
한국서부발전의 새 얼굴
- 38 **WP NEWS**
- 42 **이벤트**

혁신革新 변화하며 가치를 만드는 일



‘혁신은 고독한 천재의 머리에서 전구가 반짝 켜지는 순간보다는
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미래를 앞서간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월터 아이작슨의 저서 <이노베이터>에 나오는 말입니다.

결국 위대한 창조는 한 명의 혁명가나 영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협업’으로 탄생했음을 역설하는 글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역시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술한 어려움과 넘어야 할 난관이 생길 때에도
함께하는 협업의 정신으로 혁신을 이어가고 있는
서부발전의 이야기를 <서부공감>에 담았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혁신의 에너지를 꽃피우다



과감한 디자인과 특유의 감성으로 전자기기 시장에 혁신을 가져온 애플,
검색창 하나로 세계 최대 검색엔진이자 IT 기업이 된 구글.
세상을 바꾼 두 글로벌 기업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한다는 점이다.
더 나은 내일로 향하기 위해
오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혁신이다.

▶▶▶▶▶

혁신은 1,000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 애플 전 CEO, 스티브 잡스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성장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된 인간으로 생을 마치는 게 아까우니까.
성장이란 인간과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 <취향을 설계하는 곳, 츠타야>, 마스다 무네아키

아무것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 작가 토니 로빈스

모든 기업은 끊임없이 제품을 혁신한다.
성공하는 대기업은 다른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도래시키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제품을 도래시킨다.

- 마이크로소프트 초대 CEO, 빌 게이츠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사람, 탁월한 사람은 두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다.

- <10배의 법칙>, 그랜트 카돈

유일한 성공 법칙은 이것이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

- <타이탄의 도구들>, 팀 페리스

당신이 목표를 아주 높게 잡는다면 완전히 실패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 구글 설립자, 래리 페이지

혁신은 에너지를 써서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을 만들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 뜻한다. 혁신은 발명 이상이다. 혁신이란 어떤 발명을 사용할 가치가 있을 만큼 충분히 실용적이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널리 퍼지도록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혁신에 대한 모든 것>, 매트 리들리

혁신이 필요한 조직에 필요한 해답은 ‘인재보다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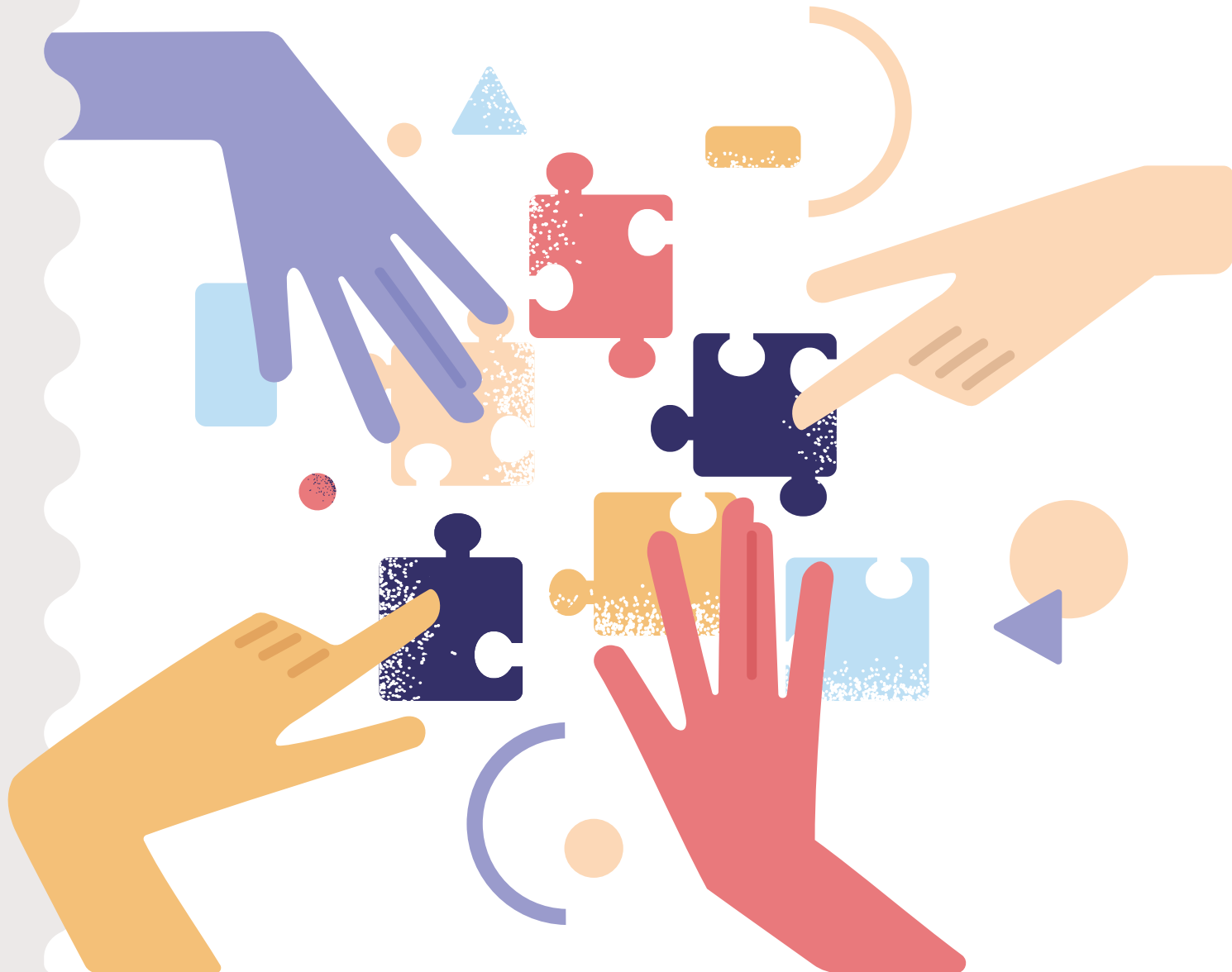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봐.”

위기를 느낀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던 고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말로

‘혁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키워드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의 상품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새로움을 탐색하고 그에 맞는 단행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CCL Center for Creative Leadership(미국의 세계적인 리더십 기관)에서 2016년에 기업 임원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임원의 95%가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오직 14%만이 자신의 회사가 효율적으로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이 ‘혁신’을 외치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누구나 변화나 혁신의 필요성은 알지만 ‘내가 먼저’ 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애사심, 직무의 전문성, 직무 몰입도, 심리적 안정감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성향과도 관련이 깊다.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을 때 업무를 헤쳐 나가는 모습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일을 즐기며 남들과 다른 완전한 새로운움을 찾는 김 대리, 옆 팀의 의견을 기웃거리며 아이디어를 빌려 응용하는 박 대리, 하늘 아래 새로운 아이디어는 없다며 구글링에 매진하는 고 대리 등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보고 개발하는 방식 또한 개인의 성향만큼이나 다양하게 표출된다.

요즘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봐도 변화를 즐기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전통 계승을 선호하는 유형이 있다. 그렇다고 혁신을 잘하는 유형, 못하는 유형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형이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지 알 수 있다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혁신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리더들은 이런 궁금증을 갖는다. 우리 조직원 가운데 가장 혁신을 잘할 수 있는 유형은 누구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MBTI의 16가지 유형을 알아보기 전 4가지 지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MBTI는 4가지 분야별 대극화된 2가지의 선호도가 있다고 한다.

①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외향형(E)과 내향형(I), ② 인식에 따라 직관형(N)과 감각형(S), ③ 판단 방식에 따라 사고형(T)과 감정형(F), ④ 행동 양식에 따라 판단형(J)과 인식형(P)으로 나누고, 이 4가지 지표의 조합으로 16가지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 4가지 지표 중 혁신을 잘 주도하기 위해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무엇일까?

두 번째 ‘직관형(N) ↔ 감각형(S)’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인식 지표이며, 네 번째 ‘판단형(J) ↔ 인식형(P)’이 일을 추진해나가는 행동 양식 지표이다.

4가지 선호 지표				
E ↔ I 에너지 방향	ISTJ 세상의 소금형	ISFJ 임금 뒤의 권력형	INFJ 예언자형	INTJ 과학자형
S ↔ N 인식기능	ISTP 백과사전형	ISFP 성인군자형	INFP 잔다르크형	INTP 아이디어뱅크형
T ↔ F 판단기능	ESTP 수완 좋은 활동가형	ESFP 사교적인 유형	ENFP 스파크형	ENTP 발명가형
J ↔ P 행동양식	ESTJ 사업가형	ESFJ 친선도모형	ENFJ 언변능숙형	ENTJ 지도자형



직관형(N)과 감각형(S)

직관형(N)은 업무를 구조화하여 인식한다.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듯 일하기 때문에 상황이 오버 뷰(Over view)로 정리되고 적응력이 빠른 편이다. 반면에 디테일 뷰(Detail view)는 어려워 빈틈이 발생한다. 감각형(S)은 매뉴얼을 기록하듯 순간순간을 포착한다. 그래서 새로움에 대한 적응 시간은 오래 걸리나 세부적인 내용까지 철저히 파악하여 위험성을 줄인다. 이런 감각형(S)에게는 '새로움'이란 불안과 긴장을 준다. 그래서 새로움 앞에서도 본인의 경험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쳐 놓고 예산, 장소, 규모 등을 바꿔보며 응용해나간다. 대신 만들어낸 아이디어에 빈틈이 없다. 현실성을 고려해 기획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관형(N)에게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일은 설레는 긴장으로 다가온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기존과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 도전한다. 이렇게 많은 생각으로 도출된 아이디어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시스템을 탄생시켜 주변을 놀라게 할지 모른다. 다만, 실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직관형(N)과 이를 완벽해질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감각형(S)이 함께 업무를 돕는다면 안정성이 고려된 혁신으로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혁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특정 MBTI 유형의 인재가 아니라 팀원의 조화다.

판단형(J)과 인식형(P)

판단형(J)은 결정을 미루면 일이 늦어진다고 생각한다. 성격 급한 판단형(J)은 빠른 결정을 기다린다. 회식 장소를 고민하는 인식형(P) 팀장은 판단형(J) 직원을 애타게 한다. "힛집과 고깃집 중 어디가 좋을까? 힛집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고민 좀 해봅시다"라는 애매한 결정을 듣고 판단형(J) 직원은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고민하는 동안 힛집에 예약이 꽉 찰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인식형(P) 팀장은 빠른 결정보다 최고의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최대한 결정을 지연시켜 하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보완재가 된다.
판단형(J)의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인식형(P)이 유연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루 전 부리나케 힛집으로 결정을 내린다. 그러고는 갑자기 당일 "안 되겠다. 회 못 먹는 사람들을 생각 못 했네. 고깃집으로 합시다"라며 결정을 반복한다. 판단형(J) 직원은 예상치 못한 팀장의 번복에 참을 수 없는 화를 느낀다. 왜냐하면 오늘 고깃집에 가지 않을 생각으로 좋은 옷을 입고 왔기 때문이다. 인식형(P) 팀장에게는 전화 한 통만 다시 하면 될 간단한 일이겠지만, 판단형(J) 직원은 우유부단한 팀장의 모습에 고개를 젓는다. 이렇듯 판단형(J)은 빠른 결정과 촘촘한 계획으로 경종이 울리면 바로 튀어 나갈 수 있는 스타트 블록에 서 있는 마라토너 같다. 반면에 즉흥적인 인식형(P)은 일의 경중보다는 꽃히는 일에 집중한다. 그러다 다른 일이 급하게 들어오면 기존에 추진하던 일과 뒤섞여 정리가 어렵다. 다만,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불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때 판단형(J)은 "이럴 리가 없는데"라며 당황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1단계부터 탐색 절차를 밟고 있을 때, 인식형(P)은 "그럴 수도 있죠"라며 그 상황에 맞는 극약처방을 내려 빠르게 보완해나간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보완재가 된다. 판단형(J)의 계획을 토대로 추진하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인식형(P)이 유연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인재보다는 팀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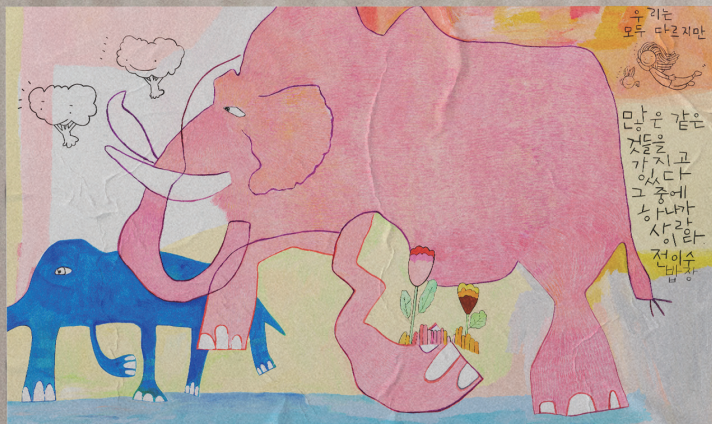
우리가 일하는 각각의 사무실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유형들이 한 공간에 모여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리더들은 업무에 적합한 유형을 골라 배치하거나, 나와 같은 유형의 업무 스타일이 맞는 파트너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적합한 인재보다는 보완하는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영국의 경영학자 메러디스 벨빈(Meredith R. Belbin)

의 연구진은 어떤 구성원끼리 모였을 때 최강의 팀워크가 발휘되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9년 동안 경영 게임에 참가한 팀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강의 실력자들만 모였을 땐 의견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실천하는 시간이 부족했고 결국 평균 이하의 성과가 나왔다. 이런 현상을 '아폴로 신드롬(Apollo Syndrome)'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연구에서 높은 성과를 낸 팀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각자의 유형별 역할을 잘 수행한 팀이 최고의 성과를 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메러디스 벨빈의 연구진은 이를 '팀 역할의 균형화(Team role balance)'라고 말했다. 이 결과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일을 잘할 것 같은 유형만 골라 채용했다간 회사가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같은 유형일지라도 팀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다를 경우 그에 맞는 수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팀원들이 모여 각자의 강점이 발휘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는 팀이기에 완성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 MBTI는 자신의 안정감을 느끼는 선호 성향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사무실 내에서 "이 주임 INTJ니까 새로운 아이디어 가져와 봐", "ISFJ인 김 주임은 새로운 거 싫어하잖아" 식의 말들이 오가지 않기를 당부한다. MBTI가 평가나 판단의 잣대가 아닌 이해하고 파악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면 조직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조수연 기업교육 전문 강사로 MBTI를 활용한 협업 역량 강화 '성과 내는 리더의 사이클' 등의 강의를 펼치고 있다. 조직소통교육 전문 기관 인허브컨설팅 대표로 삼성, SK, LG 등 수많은 기업에서 인간관계로 지친 직장인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있으며 저서로 <출근이 두렵다면, MBTI>가 있다.



새로운 길은 다름 아닌 내 안에 있어요

2016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꼬마 화가’로 이름을 알린 전이수 작가가 어느새 열다섯 살의 싱그러운 청소년이 되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과 남다른 감수성으로 여덟 살에 첫 동화책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13권의 책을 출간한 전이수 작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에 갤러리 ‘걸어가는 늑대들’을 개관해 꾸준히 작품 활동과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6년째 이어진 홈스쿨링은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살아있는 삶을 탐구하는 배움터로 확장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오늘도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중이다.

‘영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않지만 이수 작가는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솜씨가 빼어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특출난 면이 있어요. 특출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저 주변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는 탓에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홈스쿨링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요? 정해진 일과와 규칙을 따르면 되는 학교와 달리 홈스쿨링은 그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규칙이 많을수록 거기에 갇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규칙이 별로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되는데요. 우선 밥 먹을 때 먼저 일어나지 않기.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밥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남김없이 먹기. 그 외에는 자유로워요. 그래서 인지 지금까지 홈스쿨링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서 홈스쿨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수 작가의 하루가 궁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열어요. 오늘 하루 동안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계획에 따라 하루를 보내요. 심심할 틈 없이 바쁘지만 하루하루가 무척 소중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홈스쿨링을 요청했다고요. 시간을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배우고 싶은 걸 마음껏 배우기 위해서요.

요즘에는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사는 곳 주변의 삼촌과 이모들을 찾아가는 수업을 해요. 그분들이 살아온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다 보면 느끼는 점이 참 많아요.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 그 어떤 수업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또래 친구들은 중학교에서 슬슬 입시 준비를 할 시기인데 남다른 길, 나만의 길을 개척해간다는 게 문득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없나요?

불안을 안고 살면 불안한 곳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엄마가 가끔 불안해하실 때가 있어서 제가 되레 엄마를 안심시켜드려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홈스쿨링을 선택한 이유도 있다고요.

가족을 통해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동생들과 놀면서 밝고 따뜻한 말이 그 어떤 어둡고 화난 말도 이긴다는 걸 배웠어요. 또 하루는 산책길에 둘째 동생 유정이가 차를 제대로 피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어른과 마주친 적이 있어요. 그때 첫째 동생 우태가 유정이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힘은 사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해서 죽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난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난 멋지게 늙을 것이다〉중에서



람들이 흔히 말하는 강함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바르게 쓸 때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이처럼 가족을 통해 배운 삶의 방식을 몸과 마음에 담고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글과 그림에 가족과 보낸 일상이 자주 등장해요. 가족에게 받는 사랑은 살면서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수 작가의 글에는 사랑과 행복도 자주 등장해요.

웃고 행복해하는 사람보다 화내고 짜증 내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행복은 너무나 간단한데 어려워 보이거든요. 사실 ‘무엇이 행복이다’가 아니라, 내 기분이 좋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기분은 내 생각에 따라 바뀌기도 해요. <내 마음속 나무>라는 글에 이렇게 썼어요. ‘가끔 누군가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때면 그건 행복하지 않다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어쩌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마음대로 되는 일은 원래 당연한 것처럼 여겨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 반대로 생각한다. 안 되는 일은 잠시 내버려두고 되는 일은 된다고 행복해하는 거다.’

이수네 집은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편히 반말을 쓰고, 가족회의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동등하게 가족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어른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자녀들은 부모의 의견을 따르는 존재라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모습이 혁신 그 자체예요.

처음부터 엄마가 말끝에 꼭 ‘요’ 자를 붙이고 90도로 배꼽인사를 해야만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라고 가르쳤다면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지금처럼 존중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마음 깊이 우러나는 존중심을 갖는 게 누군가 시켜서 하거나 안 하면 혼나고,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니까요. 만들어진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하루하루를 피곤하게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제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제가 반말을 쓴다는 이유로 버릇없다고 해도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엄마가 있었고요. 엄마는 항상 저를 믿고 존중해주세요. 그래서 제

가 웃음이 많고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소아암 환우를 위해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장발을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 밖에도 미안마 난민학교, 아프리카 친구들, 제주 미혼모 센터 등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수 작가가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 자신을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으로 가꿔나가야 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고요. 그게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자 큰 기쁨이라고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좋겠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나를 변화시켜나가는 용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살고 싶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용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수 작가가 만들어갈 새로운 길이 어떻게 기대돼요. 살짝 귀땀해줄 수 있나요?

저는 꿈이 많은데요. 그중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은 정말 정말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고 힘과 믿음을 주는 사람. 더 넓게 보면 ‘전이수’라는 한 사람이 큰사람이 되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힘과 믿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저부터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지금보다 더 컸을 땐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도 있어요.



전이수 환경문제를 다룬 첫 번째 그림책 <꼬마악어 타코>를 시작으로 <걸어가는 늑대들>, <새로운 가족> 등 다수의 그림책과 에세이로 어른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제주 소년’. 섬세한 감수성과 남다른 시선이 돋보이는 개인전과 기획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자 아니 에르노의 삶과 글

글 윤석현_번역가, 프랑스 문학 전문 출판사 '레모' 대표

프랑스의 문학비평가 장 리카르도Jean Ricardou의 말을 빌리자면 이제 문학은 모험의 글쓰기가 아니라 글쓰기의 모험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무엇을 쓸 것인가'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글의 소재나 주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당연히 아니다.

핵심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이다. 어찌 되었든 이야기는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어디선가 본 듯한 이야기에 친숙함을 느껴 쉽게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그 익숙한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줄 때 더 강렬하게 사로잡힌다.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은 후자의 경우를 강조하며 '낯설게 하기'라는 용어로 문학의 혁신을 이야기했다.

프랑수아 오종François Ozon의 <5×2>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남녀가 이혼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두 연인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다시 구성해보면, 지극히 평범한 내용이다.

하지만 감독은 시간의 순서를 바꾸어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결과를 원인보다 먼저 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그 이야기 속에 붙잡아 둔다.

Annie Ernaux

아니 에르노의 칼 같은 글쓰기

2022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아니 에르노Annie Ernaux는 자신의 종족을 대신해 복수하기 위해 글을 쓰겠노라고 일찍이 일기장에 선언처럼 썼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멸시당했던 부모님을 비롯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복수. 아니 에르노는 가난한 소상공인의 자식으로 태어나 교육에 열성적인 어머니 덕에 사립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계급을 벗어난다. 그러나 여성이기에 육아와 살림을 전담해야 했고, 어려서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음에도 서른넷의 늦은 나이에야 <빈 옷장>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한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자신의 종의 복수를 위한 글쓰기를 생각하지만, 작가가 처한 상황은 글쓰기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이 속했던 계급 출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원의 세계로 돌아간다.

이제 작가는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를 중심인물로 삼아 소설을 쓰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소설'로 글을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다. 결국 허구적인 장치 없이, 단순하면서도 어떠한 꾸밈도 없이, 개인의 감정을 결코 드러내지 않으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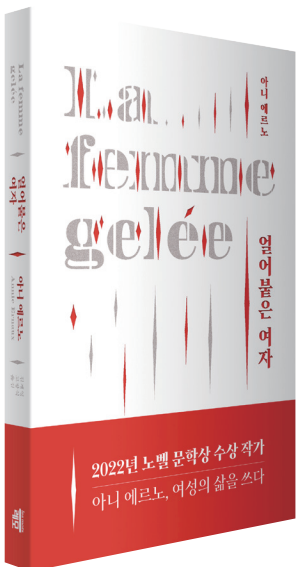
“내 삶의 진정한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이것뿐이리라.
나의 육체와 감각 그리고 사고가 글쓰기가 되는 것.”

객관적인 징표들을 모아 글을 쓰기로 하고 1983년 아버지의 삶을 반추한 <남자의 자리>를 완성한다. 가난한 노동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작은 카페 겸 상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생을 마감한 그의 일생의 이야기는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작가가 아버지를 잃은 슬픔 혹은 아버지에게 대한 연민 같은 것들을 작품에 드러냈다면, 아마도 우리는 한 부녀 사이의 감동적인 사적인 이야기로만 읽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이 배제되고, 인류학자의 시선처럼 객관적으로 쓴 한 사람의 일생은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읽는 사람을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 개인의 이야기를 보편의 이야기로 환원시키는 아 니 에르노 문학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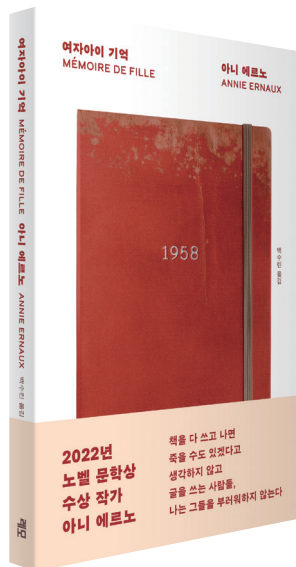
결국 아니 에르노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며 애도하는 형식의 글이 다른 이들의 가슴 한 편을 자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작가의 오랜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감정은 어디에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신이 그와 함께 경험했던 사실을 떠올리고, 그가 살았던 시절에 관해 찾아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써 내려간 글.

이렇게 아니 에르노는 그의 네 번째 작품인 <남자의 자리>부터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글로 쓰겠다고 선언하며, 자신만의 글쓰기를 시도한다. 일반적으로 작가는 자신이 직접 혹은 간접 경험한 사건들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다고 할 때, 오로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 쓰겠다는 아니 에르노의 선언은 그 다지 독창적이거나 신선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의 담대한 각오는 어떠한 사건에도 감정을 실지 않고,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는 '밋밋한 글쓰기'와 상처의 일부를 칼로 도려내 그 상처를 더 잘 보이게 한다는 의미에서 '칼 같은 글쓰기'라는 참신하면서도 대담한 방식을 통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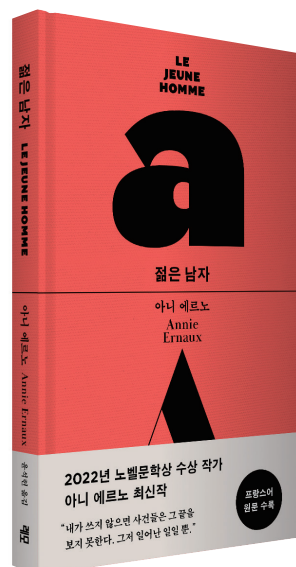
우리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바랐던 삶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여성들의 삶과 비교하기에 이른다.
결코 남자들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다.
<얼어붙은 여자>



자주, 나는 내 책을 끝마치고 나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 생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른다.
<여자아이 기억>



내가 쓰지 않으면
사건들은 그 끝을 보지 못한다.
그저 일어난 일일뿐.
<젊은 남자>



“

문학에서의 혁신은 늘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문학에서의 혁신

그 힘은 작가 개인의 이야기가 책을 읽는 독자 모두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아니 에르노 문학의 정수를 이룬다.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연인이 떠난 작가의 이야기를 읽을 때나, 어머니의 치매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불현듯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옆에 계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된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문학에서의 혁신은 늘 같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익숙할 때 낯설은 더 강한 충격을 남기기 때문이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한풀이를 위해, 그리고 오로지 경험한 것만을 쓰겠다는 아니 에르노의 선언은 결국 자신이 흠모해온 아름다운 문학의 언어를 버리고, 자신의 기원을 이루는 언어로, 보편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어우러져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다.



윤석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불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8대학에서 조르주 페렉 연구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옮긴 책으로 아니 에르노의 <사건>과 <젊은 남자>, 델핀 드 비강의 <충실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 조르주 페렉의 <나는 태어났다> 등이 있다. 프랑스 문학 전문 출판사 레모(LES MOTS)에서 다양한 프랑스 문학을 선보이고 있다.

WALK in GIMPO

자연과 혁신이 어우러진 도시 김·포·산·책

서울에서 한강을 따라 북서쪽으로 쪽 올라가면, 서울과 맞닿은 도시 김포가 있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신도시답게 세련된 건축물이 공존한다. 아름다운 야경을 자랑하는 인공수로, 도심 속 인공폭포 등 혁신적인 창의력이 돋보이는 공간이 가득하다. 이곳에 위치한 김포발전소에서는 국내 최초,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한국형 표준천연가스 복합발전 모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친환경 열병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다. 서울 근교 나들이로 다녀오기 좋은 김포의 산책하기 좋은 곳들을 소개한다.



- 1 아트빌리지 길목의 황금빛 보리밭
- 2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떠오르는 라베니체 수로
- 3 곳곳에 아름다운 조형물이 설치된 아트빌리지



SPOT 1

김포장릉

김포장릉은 추존왕 원종과 인헌왕후의 능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로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신성한 곳을 알리는 붉은 기둥의 문인 '홍살문'을 지나 제향 봉행을 하는 '정자각'으로 들어서면 네모난 창을 통해 나란히 자리한 원종과 인헌왕후의 봉분을 볼 수 있다. 왕릉 양쪽으로는 망주석, 석마, 왕을 호위하는 무인과 관복을 입고 왕을 보좌하는 문인의 석상이 옛 모습 그대로 등적하게 자리 잡고 있다. 김포장릉은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이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곳이다.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품고 있어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게 김포 시민들의 이야기. 잘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커다란 저수지와 연지가 나오는데 연꽃이 절정을 이루는 7~8월은 그야말로 장관이 펼쳐진다. 사전 예약을 통해 장릉의 역사와 조선 왕릉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문 해설사의 설명도 들을 수 있으니 참여해보자.

SPOT 2

아트빌리지

서울에 북촌한옥마을이 있다면, 김포에는 아트빌리지가 있다. 아트빌리지는 한옥 건물로 이뤄진 복합예술문화 공간으로 사진관, 공예체험관 등 볼거리, 놀거리가 풍성하다. 광장으로 들어서면 팽이 돌리기,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체험 공간이 있는데, 주말 나들이를 나온 가족 방문객이 광장을 가득 메운다. 아트센터에서는 수준 높은 전시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한옥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전통 한옥 숙소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아트빌리지 내에 식당과 카페가 있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온종일 시간을 보내기도 좋다.

MAP



- 1 원종과 인헌왕후가 잠들어 있는 김포장릉
- 2 저수지를 따라 산책길이 마련된 김포장릉
- 3 주민들의 더위를 식혀주는 모담폭포
- 4 한옥에서 고즈넉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아트빌리지
- 5 밤에 더 아름다운 라베니체의 금빛 수로
- 6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 7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아트빌리지



SPOT 3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철새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 다. 새들을 위해 만든 곳이지만 사람도 그 특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작은 호수와 수로, 습지 주변으로 계절마다 억새와 야생화들이 이루는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종의 새들과 마주치고, 특히 가을에는 철새들의 먹이 터전으로 크기러기, 쇠기러기, 왜가리, 백로, 저어새 등 철새들이 찾아온다. 서울 여의도 한강 길까지도 연결된 자전거 도로는 라이더 사이에서 아름다운 코스로 유명하다.

SPOT 4

모담폭포

김포에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많다. 그중에서도 모담공원은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들 사이에 위치해 도심 곳곳에 모담산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조성돼 있다. 전망대와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 주민들을 위한 시설도 잘 마련해놨다. 이곳을 잘 아는 사람들이 꼽는 모담공원의 주인공은 바로 모담폭포다. 인공폭포로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에 8번 40분씩 시원한 폭포수가 쏟아져 내린다. 폭포의 모습을 실감 나게 재현해 마치 숲속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한여름 정자에 앉아 시원한 폭포 소리를 들으면 온갖 고민과 근심거리가 깨끗이 씻겨 나간다.

SPOT 5

라베니체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2.68km 인공수로를 따라 수변공원과 상가가 짜임새 있게 자리 잡고 있다. 한강신도시를 관통하는 금빛 수로는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해가 지면 수로를 따라 조명이 켜지며 상가 건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야경을 빚어낸다. 시원한 수로를 바라보며 야외 식사를 즐기러 나온 가족들로 활기가 넘친다. 라베니체를 방문한다면 문보트는 꼭 타보자. 금빛 수로를 따라 30분 정도 배를 탈 수 있다. 초승달 모양을 닮은 2인용 문보트, 대가족도 다 함께 앉을 수 있는 패밀리 보트가 준비되어 있다. 주말에는 이용객이 더 많으니 김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혁신革新

낡은 것을 바꾸어 나아가는 힘

마크 저커버그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피해 가는 것'이며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인 페이스북 창업주다운 말입니다.

머물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선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묵은 풍속, 관습, 조직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지만 그렇게 변화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서부발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서부발전, '최초 국산 가스터빈' 김포열병합 발전개시

세계 다섯 번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보유국을 향해

한국서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개발된 발전용 가스터빈을 전력 계통에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가스터빈 발전이 실증 운전까지 마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 번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운영국이 된다.

가스터빈은 그동안 국내에 가동되는 전량을 수입산에 의존해 왔다.

우리 기술로 개발된 첫 번째 한국형 가스터빈이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운영되는 일이 머지않은 것이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스터빈의 전력 계통 연결에 성공했다.

서부발전은 5월 31일 경기 김포열병합발전소에서 복합설비 최초 발전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등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김포시 학운2 일반산업단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김포시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김포열병합발전소는 최신 친환경 시설을 사용하는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힘을 보탠다.

김포열병합발전소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5월 말 현재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이 연계된 500MW급 복합설비를 154kV 전력 계통에 최초로 연결해 발전개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추진력을 얻어 다음 공정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100% 부하연소 시험, 제어 설비 튜닝을 거쳐 오는 7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엄경일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이번 발전개시를 통해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가스터빈과 종합 발전설비의 건전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김포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을 무사히 마쳐 가스터빈 국산화를 이루고 김포와 인천 신도시에 안정적인 전력 및 열에너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서부발전이 ‘최초 국산 가스터빈’ 김포열병합 발전을 개시했다. 세계 다섯 번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보유국으로 도약할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며, 남은 기간 안전 최상이라는 기본 원칙 아래 성공적으로 완수해 친환경 가스터빈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세계 다섯 번째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보유국이 되는 데에는 서부발전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국내 최초 사업이었지만, 서부발전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익 가능성을 보고 대담하게 사업에 참여했다. 2019년 이후 수많은 공정 과정을 거쳐 완전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 1 발전개시 행사 축포를 쏘아올리는 엄경일 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왼쪽 세 번째)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들
- 2 발전개시 경과를 보고 중인 김재성 김포건설본부 건설기술실 공사관리부장
- 3 엄경일 서부발전 본부장이 유공직원에게 포상 감사패를 수여하는 모습
- 4 서부발전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 5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김포열병합발전소



Talk! Talk!

혁신하는 기업 서부발전의 미래를 그리다

이번 호 <서부공감>의 테마인 '혁신'을 주제로 4인 4색 익명 오픈 채팅방을 열었다. 혁신을 통해 나아가고 성장하는 한국서부발전의 미래를 그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참여자 닉네임
손을번쩍든무지님, 루피짱님, 치맥하는제이지님, 라면먹는제이지님



< SITUATION 1

우리 기업은 혁신적인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은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쟁력을 키워주기에 조직을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이다. 서부발전은 혁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손을번쩍든무지님, 루피짱님, 치맥하는제이지님, 라면먹는제이지님이 들어왔습니다.

진행자

목은 풍속이나 관습을 탈피하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때 우리 혁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조직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덕목인 혁신. 서부발전은 얼마나 혁신적인가요?



손을번쩍든무지

비교적 자유로운 유연근무 사용이나 시간휴가제가 혁신적이라 생각해요. 담당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에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근무가 가능하고 30분 단위로 시간휴가도 쓸 수 있어 개인적인 용무 처리도 전에 비해 수월해졌습니다.

라면먹는제이지

MZ세대 직원들이 많아지고 포스트 코로나 여파 때문인지 강압적인 회식이 없는 자유로운 저녁 시간이 맘에 들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당일 회식도 많았거든요. 2~3년 사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치맥하는제이지

저는 모바일오피스를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꼽고 싶어요. 급하게 휴가를 써야 하거나 사내외 메일이나 사내 경조사 게시판을 확인해야 할 때 매우 편리해요.



<

라면먹는제이지

저는 모바일오피스가 유연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족쇄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시간휴가제는 혁신적이라고 생각해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시간휴가를 낼 수 있어요.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회생하며 일하는 게 당연했다 하더라고요.

손을번쩍든무지

공공기관의 특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도 여전히 아직은 보수적인 느낌입니다. 눈치는 좀 보여요.

루피짱

저도 회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솔직히 혁신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업무 처리할 때도 그동안 하던 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라면먹는제이지



맞아요. 발전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다른 민간기업처럼 혁신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꼽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치맥하는제이지

우리 회사가 시장형 공기업이다 보니 사기업과 비교하면 보수적이고, 공무원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개방적이에요. 아무래도 공기업이어서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게 되니 기업 혁신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루피짱

공기업은 보통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혁신하고는 거리가 많이 먼 느낌이랄까.

진행자

안정과 혁신은 어떤 면에선 반대 개념일 수 있는데, 제각각의 일상일단이 있겠어요.

손을번쩍든무지

안정적인 건 일상적이면서도 익숙한 느낌인데, 혁신이라고 하면 또 다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긴 해요.

< SITUATION 2

서부발전에서 혁신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안정적인 분위기는 공기업의 장점인 동시에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안정과 혁신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부인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라면먹는제이지

저는 '의식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도 결국엔 과거에 안주하면서 생겨난 고정관념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루피짱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새로운 걸 시도하려는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윗분들은 안정적인 방향이나 예전에 했던 방향으로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손을번쩍든무지

업무 분장이나 인수인계에 있어 혁신이 필요해요. 전임자가 휴직이나 타 사업소로 가면 다음 책임자는 눈치껏 알아서 해야 하는 분위기에요.

치맥하는제이지

인수인계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받은 것 없이 고생했는데 왜 해줘?' 싶은 거죠. 처음에는 저도 전임자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이상했는데 지나고 보니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자칫 예상치 못한 문제가 튀어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라면먹는제이지

그러한 소통 부재가 청렴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진행자

청렴도 결과가 어땠나요?

라면먹는제이지

동종 발전사 중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구성원은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

루피짱

소통을 아무리 강조해도 일방적 소통만 하는 느낌.

손을번쩍든무지

소통하자고 티타임을 갖는데 결국 자신의 라떼 타령!

루피짱

맞아요! 커피타임이 제일 두려워요.

라면먹는제이지

우리 조직은 일방향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상사가 말하면 나머지는 수첩에 적는 식. 자유롭게 의견이 오가야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진행자

혁신이 필요한 부문으로 '소통'을 많이 꼽아주셨네요.

라면먹는제이지

결국 공기업의 특성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 크게 변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 과거 상사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을 내리는 문화예요. 그렇게 해도 무리 없이 진행되니까요.

진행자

상대적으로 혁신을 좀 더 지향해야 하는 부서도 있고, 안정을 더 추구해야 하는 부서도 있을 텐데요.

라면먹는제이지

설비 운영이나 안전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사업 개발이나 건설 분야가 혁신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요?

진행자

혁신을 지향해야 하는 부서라면, 오만수주 사업에 성공한 해외신사업처 같은 부서 말씀이죠?

라면먹는제이지

네, 새로운 접근 방법을 통해 어려운 사업을 수주한 것 같아요. 프랑스 전력회사를 사업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삼아 성공한 것 아닌가요? 그런 접근이 의식의 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안정을 추구하면서도 혁신적 방법으로 접근했으니, 서부발전의 좋은 전략 모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 SITUATION 3

우리 기업이 혁신적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혁신은 기업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나아가 기업 구성원들의 삶도 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바꿀 수 있다. 혁신적인 서부발전을 위한 실천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을까?

치맥하는제이지

업무적 혁신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꽃핀다고 생각해요. 다른 회사는 신입사원 전용 교육 요원이 있어 현장에 배치받은 신입이 일은 교육 요원에게 전문적으로 배우고 업무 특정 사항만 선배배 간에 인수인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행자

그러면 인수인계 시 생기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어요.

손을번쩍든무지

우리 회사는 보안 문제나 결재선이 자유롭지 못하는데, 다른 사기업에서는 협업 툴을 이용하거나 메타버스 사용으로 직원 간 소통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도 좋겠어요.

라면먹는제이지

아직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입들이 일하며 느낀 점을 경영진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불합리나 비효율을 잘 식별할 것 같아요.

진행자

일종의 신입직원과 경영진의 핫라인이겠네요.

치맥하는제이지

네, 대신 익명이 좋을 것 같네요.

손을번쩍든무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며 재택근무 재활성화를 조심스레 말씀드립니다.

라면먹는제이지

금요일 하루라도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는 캐주얼 데이는 어떨까 싶어요.

<

루피짱

금요일 1시 퇴근이요! 사실 금요일 점심 이후부터는 근무할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는데, 이럴 바엔 다 같이 1시에 퇴근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 사람이라도 남으라 하고, 눈치도 주고.

치맥하는제이지

부장님만 남으시라고 할 수도 없고! 남는 사람만 남고, 가는 사람만 맨날 퇴근하는데 서러워요.

라면먹는제이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교대로 남는 건 어떨까요?

치맥하는제이지

남는 사람이 내 일을 커버해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진행자

지방에 위치한 만큼 금요일 오후 시간은 더 귀할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서부발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10년 후 미래의 '내가 2023년의 서부발전과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치맥하는제이지

2022년 실적을 10년 동안 유지해보자. 경쟁A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 우리 잘해보자! 후배들이 다니고 싶고 일하기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가보자!

라면먹는제이지

불멸의 서부가 되자! 수영할 때 열심히 발을 구르지 않으면 가라앉는 것처럼 늘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자!

루피짱

서부발전아,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일해서 힘든 세상 잘 살아남아보자!

진행자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대화가 서부발전의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마칩니다.

손을번쩍든무지님, 루피짱님, 치맥하는제이지님, 라면먹는제이지님이 나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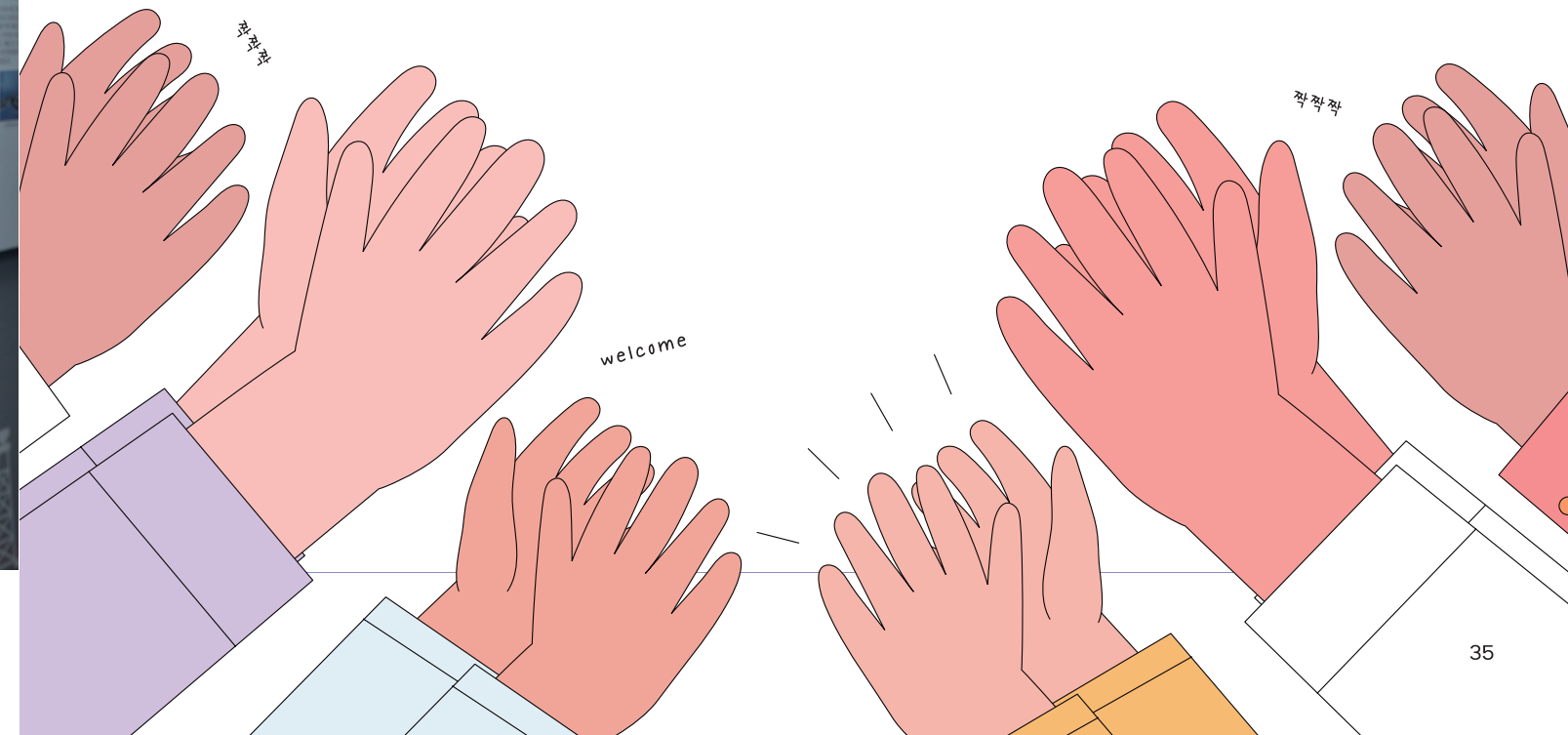
NEW HIRES INTERVIEW

열정 가득, 에너지 넘치는 한국서부발전의 새 얼굴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3년도 신규 채용을 진행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총 36명의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서부공감〉이 이들 중 4명의 신입사원을 만났다.

대전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열심히 직무 연수를 받고 있는
강창범, 황정하, 박원우 사원과 연수 후 태안에서 업무를 시작한 이금지 사원이 그 주인공.
반딧불이는 폭풍에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빛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만의 근사한 빛을 품은 채,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이들의 포부를 들어보자.

싱그러운 여름만큼이나 상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이야기.



서부인이 되어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황정하 사원(전기)



“약 8개월간의 치열한 취준(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는 당당한 서부인이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황정하 사원. 서부발전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묻자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평소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에너지 공기업에 관심이 생겼죠. 한국서부발전도 그중 하나였어요. 서부발전이 하는 다양한 사업 중 국내 최초 가스터빈 실증 사업, 수소혼소 사업 등 미래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모습을 보고 서부발전의 가치에 반해 서부인이 되길 꿈꿨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신입사원은 실무에 임하기 전 총 6주간의 연수 기간을 거친다. 2주간의 신입사원 입문교육과 4주간의 발전기초교육을 완료해야 비로소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입문교육 때는 다양한 부서의 선배들이 오셔서 서부발전의 사업과 발전 산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주셨어요. 선배들이 겪었던 수많은 경험을 들으며 저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미래의 신입사원들에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발전기초교육은 아직 진행 중인데,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에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일러, 터빈, 발전기 등 발전소 설비에 관한 수업을 듣고, 금요일마다 시험을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긴 교육 시간에 가끔 지칠 때도 있지만, 실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황정하 사원은 다양한 직렬 중 전기직으로 입사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제 몫을 다하고 싶다고 한다.

서부발전에서의 행복한 라이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창범 사원(전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직장인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연고지가 없는 타지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근무 후 자유 시간을 누구와 무얼 하며 보낼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일까. 강창범 사원은 취미가 같은 동료와 선배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회사 생활이 무척이나 기대된다고 말한다.

“입사식 전날 새빛마을과 이화마을을 방문했는데 실내 테니스장, 골프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놀랐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웃음) 스포츠에 진심인 선배, 동료들과 함께 보내게 될 서부발전 라이프가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신입사원 입문교육 기간은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 기간 내내 선배들이 잘 챙겨주었고 교육이 끝나면 함께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목요일 밤에는 새벽까지 시험공부도 하며 추억을 쌓고 있다고.

“아직 부서 배치 전이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장 오퍼레이터로 발전소 설비를 직접 조작해 운영하거나 전기부에서 공사 감독을 맡아 안전하게 오버홀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 배치되든 어떤 업무를 맡게 되든 늘 최선을 다해 맡은 업무에 임하고 선배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싶습니다.”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박원우 사원(기계)



“한국서부발전의 첫인상이요? 첫인상이라기보단 발전사에 취업하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뽑아주신 서부발전이 그저 사랑스러울 뿐입니다.(웃음)”

인터뷰 첫 질문에 한국서부발전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아 대답하는 박원우 사원은 일하는 것도, 노는 것도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남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연수 과정은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재미있는 교육이 많았고 회사의 구조나 체계 등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기계 관련 부서로 배치되어 발전소 기계 설비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아요.”

서부발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지 질문하자 이루고 싶은 것보다는 꼭 경험하고 싶은 게 있다고 답한다.

“바로 ‘시운전’인데요. 쉽지 않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직무 능력을 더 키울 수 있고 사업소가 시운전 후에 잘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아주 뿌듯할 것 같아요.”

동료와 선배에게 업무 능력도 인정받고 사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 행복한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에게서 신입사원의 열정과 패기를 느낄 수 있었다.

“머나먼 나중에도 열심히 서부발전에 다니고 있을 ‘미래의 원우’야. 태안에서 고생 많았어. 결국 네가 원하던 남양주 사업소에 가게 되었구나! 남양주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청년까지 파이팅 하자!”라고 말하는 박원우 사원에게서 힘찬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서부발전의 ‘사칙연산’을 꿈꿉니다

이금지 사원(사무)



“평생 다닐 회사를 아끼는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금지 사원은 한국서부발전에 지원한 이유로 ‘현직자의 애사심’을 꼽았다.

“발전소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현직자의 애사심을 가득 느낄 수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입사하라는 선배들의 말을 들으며 입사 의지를 다졌죠.”

발전직군과 달리 사무직군인 이금지 사원은 2주간의 입문교육을 마치고 근무지를 배치받아 현재 실무를 시작한 상태다.

“저는 현재 태안발전본부 연료자재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맡은 석회석, 유기성 고형 연료와 관련된 업무와 입항료와 접안료 등을 처리하는 정산 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무직군으로 입사

하면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다양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부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신의 역량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 힘을 더하고, 동료의 힘든 점을 함께 나누는 서부발전의 ‘사칙연산’이 되고 싶다는 이금지 사원. 그녀가 서부발전에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순환근무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한 후 해외 사업 개발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싶어요. 서부발전이 사업을 유치하고 해외 전력사와 협력하는 모습을 동경해 왔어요. 앞으로는 서부인으로서 해외 출장도 가고 협력사와 능숙하게 소통하는 직원이 되고 싶어요.”

서부발전 NEWS



서부발전,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A등급 받아

한국서부발전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전 발전자회사 6곳 중 가장 높은 성적인 A(우수) 등급을 받으며 발전 공기업 중 유일하게 등급이 올랐다. 이는 지난해 B등급보다 한 계단 오른 성적이다. 2020~2021년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2,29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전환에 성공한 덕분에 분석된다.

서부발전의 지난해 매출은 8조1,774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63.5% 증가한 수치이다. 글로벌 에너지·자원 위기 속에서도 서부발전이 이러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재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연중 재무개선 TF를 운영하는 등 경영 실적 개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도 191.1%에서 149.7%로 줄이며 재무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연료 구매 전략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전략도 유효했다. 특히 발전원가를 절감하고자 유연탄을 국제가격 대비 60% 이내 비용으로 조달하고, 구미와 공주, 여수 등 신규 복합발전소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직도입한 것이 성과에 보탬이 되었다. 서부발전의 유연탄 발전 설비 비중이 50%를 웃돌고 있으며, 전체 전력 판매량의 약 40%를 담당하기에 유연탄 가격이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서부발전은 올해에도 엄격한 기준으로 재정 건전화로 이어갈 예정이다. 2조318억원에 971억원을 더해 총 2조1,289억원의 재정 건전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이는 5개 발전자회사 중 가장 큰 규모의 절감 계획이다.



서부발전-한화임팩트, 수소 50% 혼소 기술 개발

한국서부발전과 한화임팩트가 중형 액화천연가스(LNG) 가스터빈에 수소를 50%까지 혼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6월 21일, 서부발전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한화임팩트 대산 사업장에서 '대산 수소터빈발전 실증 기념식'을 개최했다. 80MW급 중대형 터빈 기준 세계 최고 혼소율인 59.5%의 수소혼소 발전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배출가스 내 CO₂와 NO_x를 획기적으로 저감했다는 점에서 친환경 수소혼소 발전 상용화를 앞당길 유의미한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실증 기념식에서 "수소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한화임팩트와 수소혼소 발전 실증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며 "양사는 평택1복합 80MW급 퇴역 가스터빈을 활용해 지난 2년간 대산 사업장에 시험설비를 구축한 뒤 올 4월 종합 시운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50% 혼소발전 실증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박 사장은 "이번 실증으로 확보한 세계 최고의 수소혼소 기술을 바탕으로 서인천복합 150MW급 가스터빈에 확대 적용해 국내 가스터빈 수소발전 시장은 물론 나아가 글로벌 수소터빈발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 NEWS



서부발전, 국민 부담 경감 위한 비상경영 선언

한국서부발전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혁신적인 발전원가 절감과 고강도 자구 노력 추진을 위한 노사합동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이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 계획으로 발전원가 혁신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부발전은 5월 16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비상경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발전원가 절감, 재무 건전화, 조직·인사 효율화, 에너지 효율화 등 4대 핵심 현안을 선정하고 현안별 고강도 자구 노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발전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유연탄을 국제가격 대비 전년과 유사한 60% 이내 비용으로 조달하고, 구미와 공주, 여수 등 신규 복합발전소에 필요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조달할 때 직도입을 포함한 다방면의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노사가 하나로 뭉쳐 발전원가 혁신을 이루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성원 모두가 과감히 혁신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 충남·강원도에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전달

한국서부발전이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와 충청남도 이재민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4월 26일 오전 충청남도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호빈 한국중부발전 사장, 성우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성금은 이재민 임시보호소 운영, 의료지원, 구호 물품 및 식량 구매 등에 쓰일 예정이다. 박형덕 사장은 같은 날 오후 강원도청을 찾아 성금 1억원을 전달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회장 등이 전달식에 함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몇 년간 산불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서부발전 같은 공기업의 지원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소중한 성금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피해 도민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발전, 오만 태양광사업 계약 공식 서명

서부발전은 5월 18일 오만에서 열린 ‘오만 마나 500MW 태양광발전’ 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사업 발주처인 오만수전력조달공사(OPWP, Oman Power and Water Procurement Company)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서부발전과 파트너사인 프랑스 EDF-R이 마나 1단계 사업을 공동 수주한 것을 발주처가 공식적으로 알리는 자리다. 행사에는 김성균 서부발전 사업부사장과 김기주 주오만 한국대사, 이철규 한국수출입은행 두바이 지점장, 송지영 코트라 무스카트 관장 등 한국 측 관계자와 칼판 알 수아일리(Khalfan Al Shuaili) 오만 주택도시계획부 장관, 야콥 빈 사이프 알 키유미(Yaqoob bin Saif Al Kiyumi) OPWP 사장 등 현지 관계자를 포함해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야콥 빈 사이프 알 키유미 OPWP 사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초석이 될 이번 사업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준 서부

발전 등 사업 참여사들에 감사를 표한다”며 “오만 정부의 신규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균 서부발전 사업부사장은 “국내 최초로 오만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수주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파트너사인 EDF-R과 사업 일정을 준수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부발전이 따낸 마나1 태양광발전 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부지에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다. 오는 11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 서부발전은 준공 이후 태양광발전 유지관리(O&M)까지 담당한다. 향후 20년 동안 생산될 전력은 OPWP가 구매를 보장한다.

응모해 보세요



<서부공감> 114호 잘 보셨다면 주목!

하단의 퀴즈를 풀고 구글폼에 정답을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QUIZ 1

지난 6월 21일, 서부발전은 한화임팩트와 함께
세계 최초로 중대형급 가스터빈
☐ 혼소 발전 실증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힌트

<NEWS> 코너를 참고하세요

QUIZ 2

세계 다섯 번째 대형 발전용 가스터빈
보유국으로 도약할 초석이 된
'최초 국산 가스터빈' 발전개시를 시작한
열병합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서부공감> 26쪽을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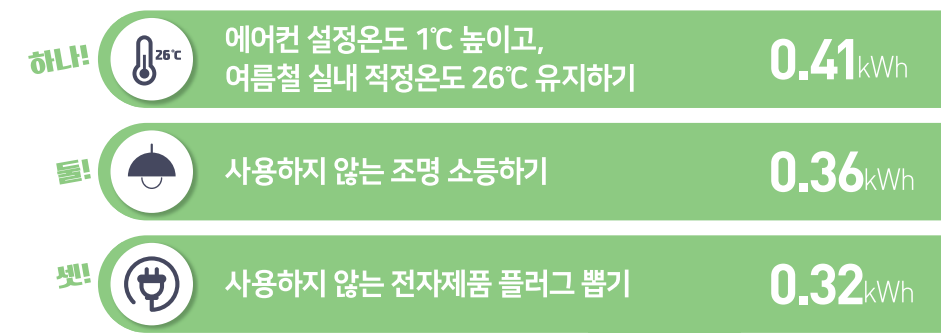
참여 방법 QR코드 찍고 구글폼에 정답 남기기

참여 기간 8월 21일(월)까지 당첨자 발표 9월 1일(금) 한국서부발전 공식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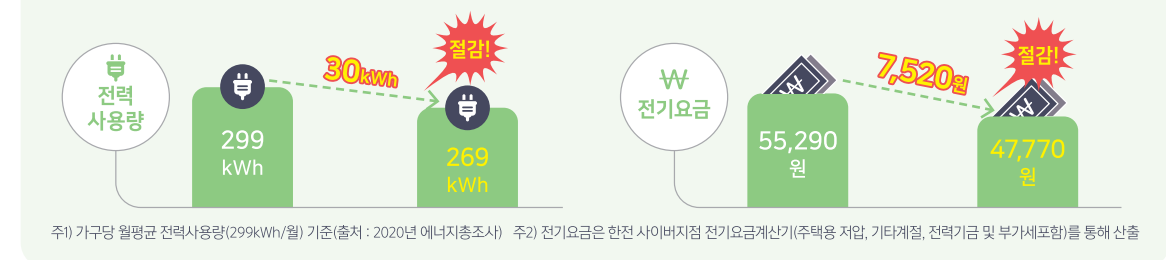
경품 커피 쿠폰(10명)

전국민 하루 1kWh 줄이기 실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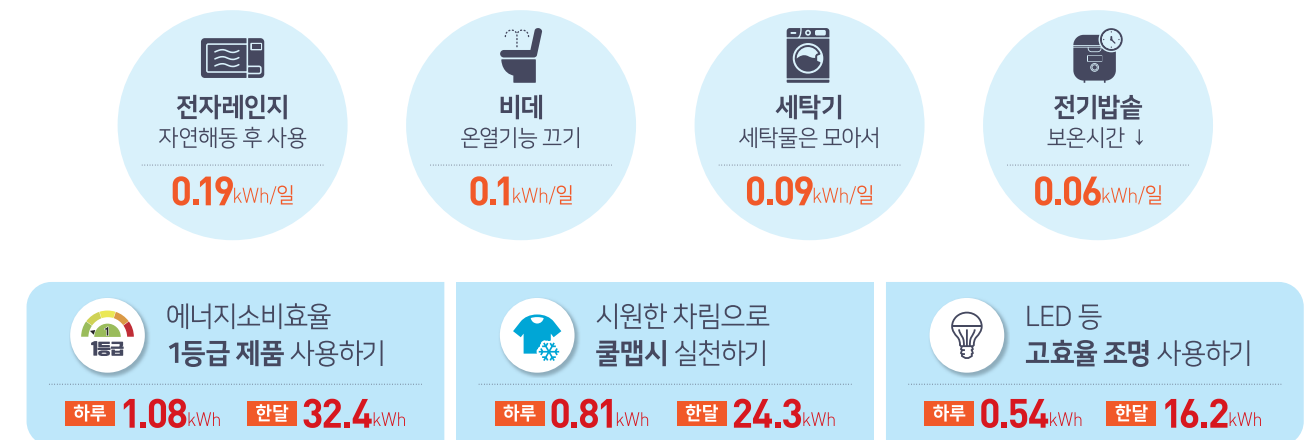
세가지만 실천해도 하루 1kWh 줄이기 성공!



하루 1kWh, 한달 30kWh 절감 → 한달 전력사용량 10%, 전기요금 14% 절감



일곱가지 더 실천하면 나도 에너지 절약 달인!





한국서부발전은 지구 환경과 동식물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혁신의 에너지를 만듭니다.

